



〈Special Issue〉

# 간호학 지식분류 유형에 따른 대한간호학회지 논문분석 - 1년간(2003년 12월호-2004년 10월호) 대한간호학회지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장 성 옥<sup>1)</sup>

## 서 론

대한간호학회지는 1970년 창간 이후 한국의 간호 지식체를 주도해온 한국의 간호학계를 대표하는 학술지로 년간 논문 투고 편수에 따른 논문 게재 거부율은 2004년을 기준으로 할 때 약 50%에 달하고 있다. 이는 국내 타 분야 학회지와도 비교할 때, 높은 게재 거부율을 보이는 것으로 본 학회 회원들의 대한간호학회지를 통한 학문적 교류요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대한간호학회 출판위원회에서는 학회지 논문의 질 제고를 위한 workshop과 학술대회를 지속 사업으로 진행해 왔으며, 2004년 논문심사위원 및 출판위원들을 대상으로 학회지 질 제고를 위한 workshop에서는 무엇이 간호학적인 논문인가에 초점을 두어 간호학문 및 간호지식체 특성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한간호학회지 게재논문 분석을 함으로써 대한간호학회지를 통한 한국의 간호학 지식체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고에서는 2004년도 대한간호학회 출판위원회에서 주최한 학회지 질 제고를 위한 workshop에서 발표된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본 론

### 학문으로써의 간호학

간호계에서는 오랫동안 간호직은 전문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학문으로써의 간호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적게 이루어져 왔다. 학문은 연구 분야 또는 지식의 분과이며 각 학문분과는 자체의 지식체를 가지고 있고 학문이라는 개념을

탐구할 때, 간호학에 이론개발이 어떻게 영향하였는지를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잘 발달된 지식체는 한 학문을 다른 학문으로부터 구분하고 두개의 학문 사이에 경계를 설정한다. 1970년대 이후, 간호는 간호연구의 활성화 이론의 개발, 간호실무의 전문화 등으로 놀라울 정도로 변화하여 왔다.

간호학에서의 이론의 개발은 간호학의 학계에서의 위상을 전문직에서 학문으로 바꾸어 놓았지만 이론과 연구를 통한 간호학문의 경계와 지식체의 진보정도는 간호학이 학문으로써 완전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좀더 강화되어야 한다(Jonson & Webber, 2001).

### 간호학문의 특성

몇몇 문헌에서 제시된 간호학문의 특성은 간호과학의 목적은 인간의 본질을 규명하고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며 이해하고 인류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간호의 특성을 연구하고 간호 행위를 설명, 예측, 통제하는 것이다(Lee et al., 2000)로 정의되어 있어, 명료하지 않다. Choi(1992)의 간호학문의 분석에 의하면 간호학의 학문적 지향성은 간호실천의 동기와 지향 목표를 갖고 있으며, 간호학 이론을 근거로 하는 간호행위는 물질이 아니라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간호학은 가치를 지향하는 학문이며, 간호는 실천을 통해서만 그 가치가 확정되는 영역으로 인간의 상호성의 기반 위에서만 존재가치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Kim(2002)은 간호학문의 규범적 기초는 인간의 건강을 전제한 간호의 실무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인간 대 인간의 연계로서의 간호실무를 고려하여야 하며, 바람직한 가치, 표준, 규범을 갖는 것으로 제시하

주요어 : 간호학 지식체

1)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대한간호학회 출판위원회 출판위원

고 있어, 인간을 대상으로 하며, 인간의 상호성 기반을 전제로 한 간호 실무를 위한 학문이며, 바람직한 가치규범의 지향성을 갖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 간호학에서의 인간에 대한 견해

간호학문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라면 간호학에서의 인간을 보는 관점은 타학문에서의 인간에 대한 견해는 인간을 인간과 비교하는 관점에서 문화 및 사회학이 시작되고 인간을 신과 비교하는 관점이 종교학적인 인간의 관점이라면 간호학에서의 인간에 대한 견해는 인간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전인적인 관점과 인간이 구성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특수 구성론적 관점이 공존하고 있다(Kim et al., 2001)고 제시되고 있다. 또한 Choi (1992)는 간호학에서는 간호대상존재의 총체성과 주체성을 고려하고, 간호대상자인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과 삶의 현장에 포섭되는 인간으로서의 간호대상 그리고 개인의 내적 심리적 욕동과 동기를 가지는 존재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Kim(2002a)은 간호대상자로서의 인간은 개인으로써 그리고 타인과 함께하는 존재로써 자신의 환경에 맥락적으로 관여하는 자연적인 존재이며, 자신과 타인에 의해서 그 존재 의미가 구성되고, 역사와 상황에 구속적이며, 자유의지, 의도를 가질 수 있고 자기-추진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상징적 실재로서의 존재라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을 탐구의 대상으로 할 때 Choi(1992)는 간호학탐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 간호문제는 법칙적이고 규칙적인지, 간호문제는 확률적인지, 그리고 간호대상자인 인간은 부분에서 전체로 개인에서 대중에게로 일반화하는 설명이 가능한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즉 간호학의 탐구대상은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없는 전체로서의 인간이며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자기변화를 유지하고 수행한다. 자연과학, 인간과학 및 사회과학 등으로 학문분과를 잠정적으로 나눈다면 간호학은 건강실무에서의 인간의 본질을 다루는 인간과학의 영역에 속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다양성에 비추어 볼 때, 간호학이 규정한 인간현상이 있다고 할 지라도 다른 범주의 과학의 영역이 상당부분 중첩되어 있게 마련이다(Johnson & Webber, 2001). 그럼에도 그러한 탐구적 특성은 인간 과학적 측면에서 수렴되고 수용되어야 되는 것이어야 하고 첨예하게 하나의 다른 입장으로 갈라설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Kim(2002b)은 간호학의 초점은 건강 관리 체계내에서 인간의 삶을 일차적 지향점으로 하면서 간호학 이론개발에서는 다양한 인식론적, 방법론적 관점을 수용하되 간호학적 관점에서의 인식론적 관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 간호학에서의 지식분류 유형

간호학 문헌에서 제시된 간호학에서의 지식분류 유형은 Carper(1978)가 제시한 간호학에서의 지식구축의 형태와 Dickoff와 James(1968)가 제시한 이론의 수준이 가장 일반적으로 제시되었던 지식분류의 유형이었으며, 1990년대 이후 한국 간호계에서는 Kim(1983)의 간호지식의 유형으로 영역(Domain)에 의한 지식 분류가 이루어졌고, 그 후 인식론적 초점에 따라 간호학 지식을 분류하는 Kim(2002a)의 관점이 소개되었다. 이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Carper의 간호학에서의 지식의 네 가지 형태

Carper(1978)는 간호학에서의 지식의 네 가지 기본 형태에 대하여 제시하였는데, 첫째가 윤리적 지식으로 간호에 있어 도덕적 지식의 요소이다 즉 어떤 결정이 가능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통찰력을 제공해 주는 지식의 형태를 말한다. 둘째는 미학적 지식이며 이는 간호의 예술적 요소이다. 즉 간호기술, 간호행동에서 표현되고 공유된 지식형태, 참여, 해석 시각화를 내포한 지식의 형태이다. 셋째는 간호의 개인적 지식 요소이다 즉 간호사 자신을 알고, 전체가 되는 내적 경험에 대한 지식이며, 이러한 요소 없이 간호사의 '자아'의 치료적 이용'은 불가능하다고 제시하였다. 넷째는 경험. 실증적 지식요소로서 간호의 과학화를 추구하는 지식형태이다. 즉 실증적(보고, 만지고, 듣는 감각을 통해 접근하는 지식)지식을 창출하는 것이며, 과학적 지식은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며, 예측하도록 하고, 통제 할 수 있는 지식의 형태이다.

### Dickoff와 James의 이론의 수준

Dickoff와 James(1968)의 이론의 수준도 간호학에서 많이 사용된 지식의 분류 유형이다. 이는 네 가지 이론의 수준으로 제시되는데, 가장 단순한 이론의 수준으로 요인분리이론(Factor-isolating theory)은 기술적이며, 사실/사건을 분류하고 명명하는 수준의 이론을 뜻한다. 그 다음 단계로 요인관계이론(Factor-relating theory(situation-depicting theory))은 상황에서 의미가 통할 수 있도록 요인을 연관시키거나 상호 관련시키는 수준의 이론이며, 상황관계이론(Situation-relating theory)은 상황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예측하거나 설명하는 수준의 이론이다.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이론유형으로 제시한 것이 상황조성이론(Situation-producing theory(prescriptive theory))으로 상황이 왜,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제공하는 가장 강력한 이론 수준이며 이 수준의 이론은 중재의 안내지침 역할을 하고, 중재 상황을 조성할 수 있으며, 간호중

재의 특별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 간호지식의 인식론적 초점에 의한 분류

진리란 있는가, 존재란 무엇인가에서 무엇이 무엇인가로 탐문을 하면서 인식론이 대두되는데 이러한 존재론적 인식론적 관점에 따라 학문의 추구영역이 결정되어진다. 예로서 간호학의 인식론적 입장은 간호학의 탐구대상은 수량화의 대상이상의 것이고 간호학과 간호행위는 가치 지향적이며 간호학의 학문적 가치는 실천으로 확정되고 간호행위자와 간호행위대상자의 인간적 자율성에 바탕을 둔다고 제시되고 있다 (Choi, 1992). 또한 Kim (2002a)은 이러한 간호학 인식론을 위한 네 개의 지식산출을 위한 인식론적 초점을 제시하였는데, 일반화된 지식을 생성하는 추론적 초점(Inferential Focus), 상황에 놓여진 해석학적 지식을 산출하는 대상 초점(Referential Focus), 비판적 해석학적 지식을 산출하는 변화하는 힘 초점(Transformative Focus) 그리고 윤리적/심미적 지식을 산출하는 소망적 초점(Desiderative Focus)이다.

추론적 초점은 인간현상에서는 규칙성이나 어떠한 양상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 지식의 초점은 이러한 일반화된 규칙성과 양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며, 지식산출의 방법으로 귀납을 통한 일반화와 연역 분석적 방법, 처방모델구축과 경험적 연구를 활용하게 된다. 대상초점은 상황에서의 특수한 인간경험의 주관성이 있고, 이러한 주관성에서 의미가 조성된다는 전제에서, 개별인간의 통찰력과 각 상황에서의 인간경험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 것을 지식의 초점으로 계몽적이고 해석적인 기술의 형태를 지닌 지식을 산출하며, 지식산출의 방법으로 현상학이나 실존주의적 분석을 활용한다. 변화하는 힘 초점은 인간생활과 간호실무가 이미 사회적인 관습에 의해 침해된 관습에 얽여 있다는 전제에서, 인간사회 생활에서 체계적으로 왜곡된 존재를 발견하여 이를 변화시키는 것을 지식의 초점으로 하며 해석학적 분석과 재구성, 담론분석을 활용한다. 소망적 초점은 최적의 인본주의에 입각한 간호의 수행, 이상적인 간호서비스를 위한 간호 수행을 전제로 하여, 가치의 우선순위, 윤리적 표준의 진보 및 간호실무의 심미적 이상에 지식의 초점을 두고, 지식의 형태는 가치와 가치표준의 확인, 실무의 규범적 지침 및 심미적 특성을 확인하는 것이며, 지식산출의 방법으로는 논리법, 철학적 분석, 합의 구축(consensus building), 사례분석, 사례기술과 같은 방법을 활용한다.

### 지식개발 영역에 따른 유형

Kim(1983)는 간호학 지식개발이 4개의 영역에서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는데, 환자 영역, 환자-간호사 영역, 간호 실무 영역 그리고 환경 영역이다. 그중 환경 영역을 제외한 세 개의 영역이 주로 지식개발 영역으로 강조되는데, Kim (2002a)은 이 영역과 이미 제시한 인지적 초점을 연결하여 간호지식분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환자영역(Client Domain)은 인간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건강과 관련되는 현상, 간호전략이 필요한 간호적인 문제(age-specific illness experience), 환자가기 때문에 경험하는 현상 즉 소아환자의 분리불안, 피로와 같은 지식에 대한 탐구 영역이며 이를 인지적 초점과 연결했을 때는 추론초점(Inferential focus)에서는 성, 나이, 문화, 맥락에 초점을 둔 규칙성을 탐구할 수 있으며, 대상초점(Referential focus)에서는 암환자 경험, 신투석 환자의 경험과 같은 지식영역이 있고, 변화하는 힘 초점(Transformative focus)에서는 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노인 여성, 노숙자에 대한 지식, 소망적 초점(Desiderative focus)에서는 환자권리, 환자의 가치결정과 같은 지식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환자-간호사 영역(Client -Nurse Domain)은 간호사 환자가 함께 있으므로 일어나는 문제들, 간호사와 함께 인간으로써 경험하는 상징, 육체적, 심리적 문제, 치료적 동맹, 상호 역할, 감정이입, 치료적 의사소통과 같은 영역이 탐구영역이며, 추론적 초점으로는 치료적 접촉, 간호사-환자의 상호 의사결정과 같은 지식영역이, 대상초점으로는 치료적 접촉경험, 감정 이입적 관계와 같은 지식이, 변화하는 힘 초점으로는 간호사-환자 관계의 체계적 왜곡관계와 같은 지식을 탐구할 수 있고, 소망적 초점으로는 간호 상황에서의 관계적 윤리, 돌봄과 감정이입의 가치와 같은 지식을 탐구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간호실무 영역(Practice Domain)에서는 실무를 위한 숙고 현상(Deliberation Phenomena)으로는 임상적 의사결정, 간호계획과 같은 지식이, 실무(Enactment)에서는 돌봄, 윤리적 실무와 같은 지식을 전인적 현상(Holistic Phenomena)에서는 수행능력, 지식의 활용과 같은 지식을 탐구하는 영역이며 간호실무 영역에서 추론 초점에서는 간호실무의 일반적 양상에 대한 과정과 간호사정이론과 같은 것을 다룰 수 있고, 대상초점에서는 간호실무의 의미와 같은 지식을 탐구할 수 있으며, 변화하는 힘 초점에서는 간호사와 의사간의 power관계, 조직적인 간호 실무에서의 우세영역과 같은 지식을 소망적 초점에서는 간호실무표준, 질적 실무의 지침, 실무윤리와 같은 지식을 다룰 수 있음을 제시하여 간호학 지식개발 영역과 각 영역에서의 인지적 초점에 따른 지식유형을 제시하였다.

### 대한간호학회지 게재 논문분석: 2003년 12월호-2004년 10월호

간호학에서 활용되는 지식분류 유형에 따라 1년간의 대한

간호학회지 논문을 분류하여 분석해 봄으로써 한국에서 발표되는 간호학 논문의 특성을 조망해 보고, 미래의 바람직한 간호학 지식 개발의 방향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2003년 12월호부터 2004년 10월호까지 대한간호학회지는 영문이 2편 국문이 6편이 발행되었는데, 영문 2편을 제외한 국문 6편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국문 대한간호학회지 6편의 총 논문 수는 126편이었으나, 연구방법분석에 대한 종설 및 동물을 대상으로 한 5편의 논문을 제외한 상기 기술된 간호학 지식분류 범주에 따라 분석이 가능한 논문은 121편이었다.

### Carper의 간호학에서의 지식의 네 가지 형태에 따른 분석

Carper의 지식의 네가지 형태에 따라 대한간호학회지 게재 논문을 분류했을 때 경험, 실증적 지식요소로서 간호의 과학화를 추구하는 지식형태가 74편(61.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간호사의 개인적 지식요소에 대한 지식이 46편(38%)로 많은 반면 간호에 있어서, 어떤 결정이 가능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통찰력을 제공해 주는 윤리적 요소 및 간호의 예술적 요소에 대한 연구는 적었다<Table 1>. 간호의 과학화를 추구하는 지식형태가 가장 많이 분류된 것은 게재된 논문이 주로 통계적 자료에 근거한 간호현상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형태를 가장 많이 취하고 있었고, 실험 연구를 이 범주에 분류하였기 때문이며 그다음으로 간호의 개인적 지식요소가 많은 것은 연구의 주제가 간호사의 실무와 관련된 내용이거나 간호대상자의 경험을 다룬 연구를 이 범주로 분류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류가 Carper의 간호학 지식구축에 대한 기본적인 양상에 근거한 정확한 분류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 대부분의 논문이 간호실무와 연관된 내용을 통계적 자료를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분석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분류는 Carper의 분류에서 비교적 우세하게 드러난 양상에 근거하여 상호배타적으로 분류해놓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Table 1> Classification based on four pattern of knowing in nursing(Carper) (N=121)

Four Pattern of knowing in nursing	Frequency	Percent
• Ethics	0	0
• Aesthetic pattern of knowing	1	0.8
• Personal knowledge	46	38
• Empirics	74	61.2

### Dickoff와 James의 이론의 수준에 따른 분석

Dickoff와 James(1968)의 이론의 수준에 따라 대한간호학회

지 게재 논문을 분류했을 때 가장 많은 이론수준은 기술적이며, 사실/사건을 분류하고 명명하는 요인분리이론(Factor-isolating theory) 수준의 논문으로 41편(33.9%)이었으며, 그 다음이 상황에서 의미가 통할 수 있도록 요인을 연관시키거나 상호 관련시키는 요인관계이론(Factor-relating theory(situation-depicting theory) 수준의 논문이 38편(31.4%)였다<Table 2>. 가장 바람직한 수준의 이론으로 제시된 상황조성이론이 27편(22.3%)으로 제시되었는데, 이 범주에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험연구를 통해서 효과를 검증한 논문을 분류하였으며, 상황관계이론 수준으로 분류된 논문은 대부분이 Lisrel 통계분석을 이용한 모형구축 연구였다.

<Table 2> Classification based on four level of theories in nursing(Dickoff & James) (N=121)

Four level of theories in nursing	Frequency	Percent
Factor isolating theory	41	33.9
Factor relating	38	31.4
Situation relating	15	12.4
Situation producing	27	22.3

### 간호지식의 인식론적 초점에 의한 분석

간호지식의 인식론적 초점에 따라 대한간호학회지 게재 논문을 분류했을 때 가장 많은 인식론적 초점은 추론적 초점으로 63.6%(77편)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다음이 소망적 초점으로 24.8%(30편)을 보이고 있었는데<Table 3>, 추론적 초점을 갖는 논문 유형은 실험연구, 관계연구, 예측모형 연구 유형이었고, 소망적 초점을 갖는 논문 유형은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학, 간호교육, 정보시스템 개발연구, 평가도구개발연구였고, 대상 초점을 갖는 논문 유형은 질적 연구, 근거이론, 현상학적 연구였다. 또한 각 인지적 초점을 근거로 하면서 지식의 범주에 따른 분석을 했을 때<Table 4>, 일반화된 지식(Generalized knowledge)은 주로 관계연구, 이론적 기틀이 명확하지 않은 실험연구, 예측모형연구가 분류되었고, 가장 많은 부분(63.6%)을 차지하고 있었고, 비판적 해석학적 지식(Critical hermeneutic knowledge)으로 분류된 논문의 예는 간호사가 노인의 경험을 체험해보면서 노인에게 대한 노화 편견을 재조명한 간호사의 노화체험이나 쉼터에 입소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등이 있었으며, 윤리적 지식(Ethical knowledge)으로 분류된 연구는 간호학에 대한 철학적, 윤리에 관한 연구였고 심미적 지식(Aesthetic knowledge)으로 분류된 논문의 예는 간호 관리 및 지역사회 연구 중 간호실무 증진을 위한 연구와 같은 연구였으며, 상황적 해석적 지식(Situated hermeneutic knowledge)은 질적 연구를 이 분류에 포함시켰다.

<Table 3> Classification based on four cognitive needs for nursing epistemology(Kim) (N=121)

Epistemic focus	Frequency	Percent
Inferential Focus	77	66.6
Trans-formative Focus	0	0
Desiderative Focus	30	24.8
Referential Focus	14	11.6

<Table 4> Classification based on knowledge sphere (N=121)

Knowledge sphere	Frequency	Percent
Generalized knowledge	77	63.6
Critical hermeneutic knowledge	3	2.5
Ethical knowledge	4	3.3
Aesthetic knowledge	26	21.5
Situated hermeneutic knowledge	11	9.1

대한간호학회지의 1년간의 논문을 다시 지식의 초점을 어디에 두었는가를 중심으로 분석했을 때, 가장 많이 초점을 둔 논문 유형은 일반화된 양상을 이해하는 것에 지식의 초점을 둔 연구로 48%(58편)에 달하였으며, 이는 주로 간호현상을 기술하고, 현상의 이해를 도모하는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둔 연구였다. 그 다음으로 규칙성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초점을 둔 연구(13.2%)는 간호중재를 개발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는 실험연구와 이론을 근거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여 변수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예측모형 연구에 대한 것이었고, 가치의 우선순위 진보를 위한 연구(9.1%)는 간호관리 영역에서 실무의 우선순위를 개발하는 연구 유형이었다 <Table 5>.

<Table 5> Classification based on focus of knowledge (N=121)

Focus of Knowledge	Frequency	Percent
Gaining insights to singularity	8	6.6
Advancing value priorities	11	9.1
Understanding generalizable features	58	48.0
How regularities Patterns occur	3	2.5
Explaining How regularities occur	16	13.2
Situation specific human experiences	3	2.5
Individual-specific variations	2	1.7
Advancing standards	8	6.6
Various clinical situations	1	0.8
Aesthetic ideals of nursing practice	5	4.1
Advancing of various aspects of nursing	4	3.3
Aesthetic ideals of various	1	0.8
Normative guideline	1	0.8

지식산출방법에 따라 1년간의 대한간호학회지의 논문을 분석했을 때<Table 6>, 가장 많이 사용된 지식산출방법은 연역/분석적 방법으로 37.2%였고, 그 다음이 경험적 연구로 19%

였고, 세 번째로는 합의구축방법으로 15.7%였다. 분류된 논문을 세부적으로 보면 연역/분석적 방법으로 분석된 논문의 대부분은 조사연구로 그 조사 변수 선정은 이론에서 연역하였다기 보다, 문헌을 통해서 변수간의 관계조사의 근거를 제시하여 분석한 논문이었다. 또한 경험적 연구에서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연구는 실험적 연구였으나, 그 실험 연구는 이론적 기틀을 구축하고, 변수 구성 및 중재방법을 연역하였다기 보다. 많은 수의 논문에서 실험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실험의 프로토콜만을 제시하여 실험적 효과를 선정된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가 많았다. 합의구축방법을 사용한 논문의 중요부분은 임상실무에서 표준이나 프로토콜 개발 연구에서 가장 나은 표준을 관련 대상자의 합의 도출의 방법을 통하여 선정하는 논문 유형이었다.

<Table 6> Classification based on methods of knowledge development (N=121)

Methods of Knowledge Development	Frequency	Percent
Induction & generalization	5	4.1
Deduction & analytic methods	45	37.2
Reconstruction	0	0
Prescriptive model-building	9	7.4
Empirical Research	23	19
Concept development	1	0.8
Philosophic analysis	1	0.8
Consensus building	19	15.7
Case analysis	4	3.3
Model-case description	6	5.1
Phenomenological description	3	2.5
Existential analysis	5	4.1

## 지식개발 영역에 따른 분석

Kim(2002a)의 지식개발 영역에 따라 1년간의 대한간호학회지 게재논문을 분류했을 때<Table 7>,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은 실무영역으로 50.5%(61편)이었고, 그 다음이 환자 영역으로 47.1%(57편)이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환자-간호사 영역과 환경 영역은 적었다. 분류된 논문을 세부적으로 보았을 때, 실무영역에 속하는 논문은 간호사의 실무에 관련된 지침 및 중재, 기초자료 산출에 대한 논문이었고, 환자 영역에 속하는 논문은 간호대상자의 질병 경험 및 대상자 건강

<Table 7> Classification based on four domains for nursing(Kim) (N=121)

Domain	Frequency	Percent
Practice Domain	61	50.4
Client Domain	57	47.1
Client-Nurse Domain	3	2.5
Environment Domain	0	0

관련 행위의 관련 변수에 대한 논문을 분류한 것이었다.

## 결론 및 제언

간호학 지식 분류에 대한 문헌을 고찰하고 이에 준하여 1년간의 대한간호 학회지 게재논문을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대상을 1년간으로 한정된 것이므로, 분석의 결과가 한국의 간호학 논문의 특성을 모두 반영한다고 볼 수 없고, 기존에 제시된 구체적 분석틀이 없고, 분석의 틀을 문헌을 토대로 주관적으로 분류하였으므로 수치 및 백분율의 구분 면에서 약간의 오류도 있을 수 있으나 한국에서의 간호학 논문의 현주소와 미래의 방향을 조명하는 계기 마련은 되었다고 생각된다. 분석 결과를 통해서 결론과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문헌에서 제시된 간호학문의 특성은 간호실천의 동기와 지향목표를 갖고 있으며, 간호학문의 규범적 기초는 인간의 건강을 전제한 간호의 실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인간 대 인간의 연계로서의 간호 실무를 고려하고 있으며, 바람직한 가치, 표준, 규범을 갖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건강관리 체계의 범주에서 간호대상자로서의 인간은 개인으로써 그리고 타인과 함께하는 존재로써 자신의 환경에 참여하는 자연적인 존재이며, 자신과 타인에 의해서 그 존재의 의미가 구성되고, 역사와 상황에 구속적이며, 자유의지 및 의도를 가질 수 있고 자기-추진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존재이다. 간호학적 논문은 이와 같은 간호학문의 특성을 반영하며 필요로 되는 지식의 영역에 따라 다양한 인식론적, 방법론적 관점을 수용한다. 따라서 간호학적 인식론의 초점은 과학적으로 일반화된 지식을 생성하는 추론적 초점, 상황 맥락에 속한 인간의 삶을 탐구하는 해석학적 지식을 산출하는 대상 초점, 왜곡된 체제에서 간호대상자 옹호를 위한 비판적 해석학적 지식을 산출하는 변화하는 힘 그리고 간호에서의 윤리적/심미적 지식을 산출하는 소망적 초점이 될 수 있다고 제시되고 있다.

1년간의 대한간호학회지 게재논문 121편을 간호학 지식분류에 의해 분류해 본 결과, 대한간호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간호학 지식산출 양상과 영역이 편중되어 있었다. 즉, 간호학 논문은 추론적 초점에 기반 한 실증적 자료에 의한 과학화를 추구하지만 그 실증적 자료가 요인의 탐구 또는 요인과 요인간의 관계를 도구를 통하여 실증적 자료화한 자료를 조사 분석하여 연구하는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간호학 논문은 간호 간호실무의 지식 요소를 다루고 있지만 실무에서의 의사결정이나 윤리적 측면에 대한 탐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한 각 인지적 초점을 근거로 하면서 지식의 범주에 따른 분석을 했을 때, 일반화된 지식은 주로 관계연구, 이론적 기틀이 명확하지 않은 실험연구, 예측모형연구가 분류되었고, 게재논문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는 점, 그리고, 지식산출방법에 따라 분석했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된 지식산출방법은 문헌을 통해서 변수간의 관계조사의 근거를 연역한 논문이 많았다는 점은 간호학 논문이 인과관계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대상자의 자가 보고에 의존하여 변수의 관계를 분석하는 상관관계 연구가 주요 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 반면 비판적 해석학적 지식이나 윤리적 지식, 질적 연구로 분류되는 상황적 해석적 지식이 비교적 적어, 대한간호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이 한국에서의 간호현상을 간호학문의 발전적 관점에서는 균형 있게 분석하고 있다고 볼 수 없었다.

학문의 독자성은 고유한 탐구영역과 그 대상을 바르게 규명해낼 수 있는 방법적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해당영역에 바르게 연결되는 지식체를 가짐으로써만 타 분과영역과 구별되는 독립된 학문분과로서 성립될 것이다. 간호학문은 간호 실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 실무에서 활용될 수 있는 지식체 산출은 간호학 논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다양한 간호학적 특성을 깊게 반영하는 간호학 논문의 산출이 많을수록 간호학은 그 학문적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한국간호의 지식체 발전을 위한 반영적 탐구가 필요하고 또한 한국간호에 필요한 간호학 지식체에 따라 연구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 논문의 간호학 학술지의 게재를 결정하게 되는 주요 관점이 결국 이 논문이 간호학 지식체 개발에 어떠한 의의를 가질 것인가 하는 간호학적 유의미성인 것을 참고할 때 논문심사과정에서도 이러한 관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방법론적인 문제의 제기는 간호학의 대상이 인간이라는 측면에서 간호학에서 규정한 인간적 특성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의 문제로 귀착될 수 있는데, 이에 더해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간호학 논문이 인간을 탐구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현재 대한간호학회지 외에 7개 분과학회지가 출간되고 있으며, 그 외, 특정 간호영역에 대한 학술지가 출간되고 있다. 대한간호학회지가 한국의 간호학을 주도하는 학술지임을 고려할 때, 추구하는 지식의 특성에 따라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비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그리고, 추구하는 지식의 특성에 따라 게재 논문을 분리하여 각기 다른 학술지로 발전시키거나 Section으로 나누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간호학 논문 중에 인간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동물을 대상으로 했거나 혹은 체제, 조직 또는 연구 및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분류체제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다양한 관점에서의 간호학문의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간호학의 미래는 지속적인 각 구성원의 학문적 노력과 관련된 실무에 기초한 지식의 활용성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간호학에서의 유용한 명제를 산출하고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간호연구자는 간호실무자와 협력해야 하고, 이와 더불어 학회지 출판 업무에서 간호 실무에 필요한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학문적 발전과 잘 연계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이를 위한 지속적 탐구 및 연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References

- Carper, B. (1978). Fundamental pattern of knowing in nursing, *Adv Nurs Sci*, 1, 13-23.
- Choi, N. H. (1992). *A critical analysis on methodology of nursing*, Doctoral dissertation, Seoul: Yonsei University
- Dickoff, J., & James, P. (1968). A Theory of theories: A position paper, *Nurs Res*, 17(3), 197-203.
- Johnson, B. M., & Webber, P. B. (2001).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asoning in nursing*, New York: Lippincott.
- Kim, H. S. (1983). *The nature of theoretical thinking in nursing*, Norwalk: Appleton Century-Croft.
- Kim, H. S. (2002a). *Research & Knowledge development within the framework of nursing epistemology*, -A Speech delivered at Conference, July 12-13, 2002, Seoul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Nursing Science Research Institute.
- Kim, H. S. (2002b). An integrative framework for conceptualizing clients: A proposal for a nursing perspective in new century, *Nurs Sci Q*, 13(1), 37-40.
- Kim, S. J., Lee, S. O., Kim, M. J., Park, J. H., Chang, S. O., Kil, S. Y., Jin, E. H., Lee, M. H., Shon, J. T., & Chang, E. H. (2001). *Fundamentals of Nursing*, Seoul: Sumunsa.
- Lee, S. W., Kim, J. H., Lee, B. S., Lee, E. H., & Jung, M. S. (2000). *Understanding on nursing theories*, Seoul: Sumunsa.